* 아주 살짝 우울과 열등감에 빠져 쓴 글이니 읽기 전 우울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

요새 42서울에서 왜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느낀다.

블랙홀에 쫓겨 코딩하던 당시에는 속된 말로 너무 빡세게 굴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늦은 시간만큼 벼락치기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비교하게 된다.

웹서핑을 하다 보면 개발자를 종종 마주친다.

일찍이 수학,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컴퓨터 관련 전공 학과에 진학해 관련 진로를 준비한 사람

뒤늦게 준비한 나와 달리 미리 준비해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만, 뭐 이건 나와 환경이 많이 다른 케이스이니 이 악물고 그렇다 치자. 그런데 몇몇 나와 나이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입문한 시기도, 기타 여러 환경과 상황도 비슷한 사람도 내 아득한 위 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프로젝트, 블로그, 깃허브 정도 보면 대충 견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부끄러워질 따름이다.

스스로의 글 솜씨나 말솜씨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IT 교육자, 괴짜스러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설명하는 인플투언서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들은 나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으면서 글도 읽기 좋게 잘 쓴다.

이들은 맞춤법이나 형식 등이 완벽하진 않아도 주제에 맞게 읽기 좋은 글을 쓰는데, 나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항해 지식 없이 손가락에 침 묻혀가며 꾸역꾸역 배를 몰고 있는 기분이다.

이런 생각 할 시간에 코드 한 줄이라도 더 짜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 안다.

참 웃긴 게 항상 다 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앎은 무지보다 못하다.

알면 뭐 하나.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할 줄 알면서 직접 서버에 블로그를 배포하지도 않았다.

할 줄 알면서 다든 블로그 플랫폼으로 직접 광고를 붙이거나 블로그를 꾸미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잘 조성된 네이버 블로그 환경에 넘치는 글감 가지고 편하게 글만 쓰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쓰다 만 글, 매일 포스팅하겠다는 다짐만 지키려 꾸역꾸역 작성한 비공개 글이 산더미다.

글도 잘 못 쓰면서 어설프게 좋은 글을 쓰려고 한다.

IT 블로그를 지향하면서 정작 블로그 조회수는 IT가 아닌 다든 주제 글로 올리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어디까지를 개성이고 차별점이라고 봐줘야 할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인플투언서는 될 수 있을까?

애초에 왜 인플투언서가 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자조적인 글을 쓰고 싶었다.

그냥 글감이 떠올라서 생각나는 대로 썼다.

자조를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니, 재미있게도 뜻이 여러 가지였다.

단어 19

자조¹ 自助 🕕

- 1. 명사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씀.
- 2. 명사 법률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자조³ 自嘲 [자조] □ ●

명사 자기를 비웃음.

표준국어대사전

자조² 自照 ⊕

명사 자기를 관찰하고 반성함.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자조는 자기를 비웃는다는 뜻(自嘲)과 동시에 자기를 관찰하고 반성한다는 뜻(自照)과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 로 애쓴다는 뜻(自助)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한 단어 그 자체다.

이 글은 몰라도 나는 自嘲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自照 하고 自助 해야 한다.

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가졌으니, 그릇을 키우든 욕심을 줄이든 이제는 선택을 해야겠다.

한탄도 멋있는 말도 실컷 했으니, 이제 할 일 하러 가자.